

탄소예술 진흥 · 의제 개발 '맞손'

전주문화재단-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 소재 활용 예술작품 활동 지원 협약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탄소 소재를 활용한 예술작품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운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1년부터 '탄소예술 기획전' 공동 개최를 통해 탄소예술 작가 20명을 발굴하고, 탄소예술 창작품 제작을 위해 예술가를 지원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탄소산업과 예술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탄소예술 진흥 의제 발굴, 탄소예술작가 대상 탄소소재 활용 교육 지원, 탄소예술기획전 공동 개최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예술' 장르를 발굴하고, 탄소 소재를 활용한 예술작품 아이디어를 가진 작가들을 지원하고, '탄소예술기획전'을 통해 탄소예술분야 성과 창출 및 탄소예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해 5월 개최된 세계 최대 복합재 전시회인 JEC World 2022에서 'Carbon Life Hall' 운영을 통해 가구에서부터 생활용품, 악기,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탄소소재 활용 사례를 발굴 전시함으로써 산업용 소재로만 여겨졌던 탄소소재의 산업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탄소예술 진흥과 의제 개발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탄소산업소재를 문화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탄소 소재를 활용한 예술작품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운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며, "그간의 협력 과정을 기반으로 탄소 소재를 활용한 우수한 예술 작품 활동 지원과 발굴을 통해 탄소예술이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운혁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탄소복

합재를 예술작품의 소재로 재사용함으로써 업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ESG 경영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예술 활동 활성화 · 청년예술가 육성 나선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13일부터 접수 시작

군산시는 2일 지역 내 역량 있는 예술가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해 2023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3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지원금은 신인·지역예술가 지원사업 8천만원, 시민아이디어 창작공연 지원사업 4천만원,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 3천만원이다.

신인·지역 예술가 창작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관련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로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사진,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해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시민아이디어 창작공연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9세 이상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영화, 연극, 뮤지컬, 마술 등 군산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공연분야에 특장해 지원한다.

또한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군산시 청년예술인이며, 지금까지 군산시 문화예술보조사업지원 이력이 없는 개인 및 단체들에게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사진,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금을 작년대비 3천만원을 증액하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공모에 신청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오는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접수 마감일은 사업별로 상이하다.

박홍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및 지역 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년예술가들의 기반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 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소룡화랑서 환경미술협회 군산지부 작가 초대전 개최

군산시 소룡동은 2일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소룡화랑에서 오는 6월말까지 (사)환경미술협회 군산지부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가 초대전은 군산지역 환경미술협회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우리 시대 환경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고 환경과 인간의 의미를 탐색해 보는 계기를 찾고자 마련됐다.

전시회 참여 작가는 고미경, 김경수, 김경아, 김미라, 김미연, 박선수, 박미자, 백영란, 부경희, 서희정, 신소연, 신수연, 안미숙, 오화연, 채영숙, 임형석, 한운수, 휘드미혜 김 등 18명이다.

임길훈 주민자치위원장은 "소룡동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는데, 청사 유휴공간을 개선해 주민들의 문화소통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주민들의 문화소통에 긍정적 창구역할로 앞으로도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지속 전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삼권 소통동장은 "이번 정기전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더불어



여 예술적 기량을 맘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소통동 주민들과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 서양미술 역사를 만나다'

미술관 술, 기획전 개최... 진한 작가 '구두' 최초 공개

2일 미술관 술(대표 서정만)에 따르면 2월 2일부터 4월까지 4부에 걸쳐 2023년 전북 서양 미술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속 기획전이 열린다.

작가는 도내 출신 또는 도내에서 활동했거나 도내 미술사에 영향을 미친 작가 위주로 선정됐다.

한편 전북미술사에서 서양화(유화)는 일제 강점기 일본 유학을 다녀온 유화파 중심으로 시작했다. 이후 도내에서는 사설미술 기관인 동광미술연구소를 통해 작가가 육성되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해방 직후 여러 미술 단체가 생겨났으며, 전시를 통해 전북의 서양미술은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미술관 술은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진한의 '구두'를 꼽았다.



진한 작가 '구두'

그는 고창 출신으로 홍익대 교수를 지냈다. 이에 의하면 작가는 이준섭을 비롯한 신

미술가협회 소속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주의적이고 향토적인 서정성과 민족주의적 인 정서를 담은 그림을 그린 작가로 평가받는다.

또한 그는 함께 활동한 이준섭, 최재덕과 함께 소를 주요 소재로 삼았다.

특히 작가는 민족의식이 강하고, 화가이자 교육자로 평가받으며 그가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확인된 그의 유작은 모두 30여 점에 불과하다.

이 작품은 그의 유일한 유작전인 1983년 신세계미술관 전시 도록에 수록돼 있는 작품으로, 제작시기는 1932년인 것으로 보아 그가 1934년 일본 유학을 가기 전 독학으로 그린 수채화 작품이다.

미술관 술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지역 서양화의 시작과 현재를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문외는 전화(063-285-056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고창군,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출범

전북 고창군의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일 열린 위촉식에는 각계각층의 기관사회단체장들과 관공무원 및 각 분야의 부서장과 함께 총 47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추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앞으로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홍보활동에 참여하며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나서게 된다.

심택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고창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지문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해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달 16일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서울에서 선포식을 개최하고 고창 방문의 해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